



지난 15일 경남 합천군 합천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국화장사(70kg이하)에 등극한 엄하진(구례군청)이 우승을 확정지은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례군청 여자씨름단 '모래판 무적'

설날장사 씨름대회 장사 2명 배출 매화급 이연우·국화급 엄하진 정상에 단체전도 화성시청 3-1로 꺾고 우승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장사 2명을 배출했다. 구례군청은 단체전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이연우(구례군청)는 지난 15일 경남 합천군 합천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매화장사(60kg 이하) 결정전(3전 2승제)에서 같은 팀 동료이자 라이벌인 양운서를 2-0으로 꺾었다. 양운서를 앞무릎치기와 뒷무릎치기로 제압한 이연우는 개인 통산 5번째 매화장사에 등극했다.

국화급(70kg 이하) 결승에서는 엄하진이 김다혜(안산시청)를 2-0으로 제압하고 통산 네 번째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무궁화급(80kg 이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다현(구례군청)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여자전장사씨름을 포함해 6관왕을 차지한 이다현은 최화화(안산시청)를 2-1로 꺾고 통산 10번째(무궁화장사 9회·전하장사 1회)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설날 대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여자부 단체전(팀 간 5전 3승제·개인 간 3전 2승제)에서는 이연우, 김근혜, 양운서, 엄하진, 김다영으로 꾸려진 구례군청이 화성시청을 3-1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이연우가 첫판에서 승리해 1-0으로 리드를 잡은



위더스제약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 여자부 단체전에서 우승한 구례군청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청은 두 번째로 나선 김근혜(국화급)가 화성시청 권수진에게 패배해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세 번째 판 양운서가 김시우(화성시청)를 밀어치기와 잡채기로 쓰러뜨리면서 구례군청이 2-1로 다시 앞섰다.

네 번째 판에서는 연장 접전 끝에 계체 결과로 구

례군청이 우승을 확정했다. 한 점씩을 주고받은 엄하진과 김주연(화성시청)이 마지막 대결에서 연장전까지 돌입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결국 계체 결과 체중이 적게 나온 엄하진이 승리를 챙겼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학폭 파문' 휘청이는 흥국생명 1위 수성할까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 이탈
3연패 빠지며 팀내 불화설까지
7경기 남기고 독주체제 제동 걸리며
2위 GS칼텍스에 승점 5점차로 쫓겨

막강한 전력으로 독주하던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이 대형 약재에 휘청이고 있다. 전력의 핵심인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

(25)이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여 이탈했고, 남은 선수들은 부담감에 시달린다. 잔여 경기가 많지 않고, 그동안 쌓아 놓은 승점도 많지만 1위 수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 15일까지 흥국생명은 승점 50(17승 6패)으로 한 경기를 더 치른 2위 GS칼텍스(승점 45·15승 9패)에 승점 5차로 앞섰다. 4위 IBK기업은행(승점 32·11승 13패)과의 격차는 18점이다. 7경기를 남긴 흥국생명은 승점 1을 추가하면 3

위까지 얻는 포스트시즌 진출권을 앞질러 손에 넣는다. 승점 14를 추가하면 정규리그 1위도 확정한다. 한국프로배구 V리그는 세트 스코어 3-0 혹은 3-1로 승리하면 승점 3을 얻는다. 3-2로 승리하면 2점, 2-3으로 패하면 1점을 받는다. 세계 최정상급 레프트 김연경이 복귀하고, 국가대표 세트 이다영을 영입한 흥국생명은 그동안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하며 독주했다. 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모두 패했고, 승점 1

만 추가했다. 팀 내 주전급 선수들의 불화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주축 선수 2명이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기력도 뚝 떨어졌다. 코트에 나서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남은 경기는 치러야 한다. 남은 선수들의 목표는 '1위 수성'이다. 레프트 이재영의 빈자리는 김미연, 세트 이다영의 공백은 김다혜와 박혜진이 메운다. 측면 공격은 김연경과 브루나 모라이스(등 록명 브루나)가 책임진다. 김연경의 공격 부담을 새 외국인 선수 브루나가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연합뉴스

시프린 통산 6번째 우승 스키 알파인 세계선수권



미케일라 시프린(26·미국·사진)이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알파인 복합에서 우승했다. 시프린은 16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열린 여자 알파인 복합 경기에서 합계 2분 07초 22를 기록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2위 페르타 블로바(슬로바키아)의 2분 08초 08을 0.86초 차로 따돌린 시프린은 이로써 세계선수권 통산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 세계선수권 회전을 석권한 시프린은 2019년 슈퍼대회전에 이어 이번 대회 알파인 복합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알파인 스키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6개를 따낸 것은 미국 선수 최다 신기록이다. 시프린 외에 남자 테드 리거티가 세계선수권 금메달 5개를 획득했다. 시프린은 또 세계선수권 통산 메달 개수를 9개로 늘려 린지 본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미국 선수 최다 메달 기록(8개)도 경신했다. 알파인 복합은 속도계 경기인 슈퍼대회전과 기술계 종목인 회전 경기 성적을 합해 순위를 매긴다. 기술계가 주 종목인 시프린은 슈퍼대회전에서 1분 22초 17을 기록해 3위로 들어왔고, 이어 열린 회전에서 45초 05로 1위를 차지해 종합 1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학폭 논란에 추락한 배구 가족

쌍둥이 자매 엄마인 국가대표 출신 김경희씨도 비난 받아

중·고교 운동부에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배는 '스타 플레이어'다. 여기에 '부모의 입김'이 더해지면, 해당 선수는 '선수 이상의 권력'을 손에 넣는다.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인 이재영과 이다영(이상 25)은 학창 시절부터 '한국 배구의 미래'로 조명받았다. 더구나 둘의 어머니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한국 여자대표팀 주전 세터로 뛴 김경희 씨다. 한국 배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였던 '배구 가족'은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급격하게 추락했다. 이재영·이다영과 함께 중학교 배구부에서 뽐낼 말의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쌍둥이만 서로 울리고 때리고, 돌만 하는 배구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며 "“(김경희 씨가 세트 이다영에게) 언니에게 공을 올려라"라고 코치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었다"고 썼다. "쌍둥이를 국가대표로 키운 어머니"라는 부러움

을 샀던 김경희 씨는 이제 '경기에 관여한 어머니'로 비판받는다.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흥국생명은 이재영과 이다영을 '무기한 출전 금지' 처분했다. 대한민국의 배구협회도 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배구협회는 이어 "김경희 씨에게 지난해 수여한 '장한 어머니상'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김경희 씨는 '흥국생명 훈련을 참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흥국생명은 "이재영, 이다영의 어머니가 훈련을 지켜봤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프로에서는 선수의 부모가 현장과 구단을 압박할 여지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영과 이다영의 중·고교 시절에는 김경희 씨의 입김이 곳곳에 작용했을 수 있다.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팀 성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터라, 지도자도 김경희 씨의 목소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김경희 씨에게는 '모정'이었겠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권력 행사'였던 셈이다. /연합뉴스

송명근·심경섭도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학교 폭력 의혹으로 소속팀 흥국생명으로 무기한 출전 금지 처분을 받고, 대표팀 자격도 무기한 정지된 이재영·이다영(25) 쌍둥이 자매는 향후 지도자로 뛰기도 어려움을 전망이다. 조유구 대한민국의 배구협회 사무처장은 16일 언론과 통화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로 판명된 선수는 지도자 자격을 획득할 때 '결격 사유'가 생긴다"며 "지도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중징계 경력은 '제한 사항'이 된다"고 전했다. 조유구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연결에서도 지도자 결격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모두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도자 자격을 얻는데 '학교 폭력 이력'은 엄청난 감점 대상이 된다. 학교 폭력의 과오를 인정한 이재영과 이다영, 남자부 송명근과 심경섭(이상 OK금융그룹)은 협회 산하 단체의 지도자로 뛰기 어렵다. 또한 배구협회는 송명근과 심경섭의 국가대표 자격도 무기한으로 박탈하기로 했다. 조유구 사무처장은 "협회는 이재영, 이다영, 송명근, 심경섭 선수의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어제는 이재영과 이다영의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소식이 주로 전해졌지만, 두 남자 선수도 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학교 폭력 연루를 시인한 심경섭(왼쪽)과 송명근.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션 파서블
2관	미션 파서블, 더블패티
3관	소울
4관	소울
5관	새해전
6관	미션 파서블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7관 세네커피	시간의 끝에서 널 기다려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확여행 어니스트 피프, 인투 더 미러
8관 세네커피	아이, 몬스터 헌터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토문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

GAC 기획공연 포시즌즈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